

오직의 복음을 정리한 복음엘리트 누가 -복음으로 여는 누가복음- 에스라 7:10, 누가복음 1:1-4

정윤돈 목사님

* **스7:10**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 **눅1:1-4**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뜻을 둔 사람이 많았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며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자 증거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그러한 몸에도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응답과 축복을 뿌려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복음화와 우리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힘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변민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절대적인 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 속에서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레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그리하여 그 말씀성취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1.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의 영적 여정
1)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환영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여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영으로 군림하기 위한 입성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2) 월요일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본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교 지도자들은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은가 그릇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종교지도자처럼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 여부와 관계없이 내 입장에 맞는가, 내 집안이 나라는가에 이익이 되는가만을 따집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문제의 본질인 욕신의 정욕, 만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자기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매우 힘들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3) 화요일과 수요일 화요일에는 종교지도자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는 상황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베드로처럼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성격이 아니라, 매우 계산이 빠르고 눈치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적인 이익을 얻을 줄 알았으나, 상황이 녹음의 길로 흐르는 것을 보고 제발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가롯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가롯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주님은 유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끝내 주님을 떠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5) 금요일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일곱 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나 이루었다"는 선언이다. "나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일종의 '미래완료형'과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야구 타자가 공을 치는 순간과 비슷하다. 수련된 타자는 배트에 공이 맞는 찰나, 공이 펜스를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것이 홈런임을 직감한다. 타구의 궤적을 보며 이미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앞으로 일어날 부활과 승천, 재림을 통한 완전한 승리를 이미 확정 지으셨다. 우리가 응답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한 왕이자 주인, 그리고 그대 그리스도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의 상태이다. 이 믿음이 확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안타깝게도 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 뿐,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가 그리스도도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도 인생의 모든 답을 내 대표적 인물들이 마가다리파의 성도들과 구약의 다니엘이다. 그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 오직 복음과 진도를 위해 생명을 걸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 한 500여 형제 중 대다수가 결국 떠나갔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 30여에 끝까지 남은 자는 누가와 디모데 등 소수에 불과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30여 명의 인물만이 남았다. 단순히 문자로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고통이 이미 끝났음을 실제로 믿어야 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제 여러분은 비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같은 존귀한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란다.

2. 민주주의의 기독교적 배경

기독교가 곧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토대는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본래 '왕'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이다.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였다. 당시 로마 가톨릭과 루터 16세, 헨리 8세 같은 절대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며 종교를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

하였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왕과 귀족들만이 풍요를 누리는 불평등한 현실에 맞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훗날 프랑스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와 사자와 먹양을 일삼을 때, 백성들은 성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어났으며 그 결과 최초의 대통령제, 삼권분립 등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형성되었다. 오늘날의 세계 역사는 기독교와 성경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자유주의 인권, 자본주의의 번영, 대학의 발전 등은 모두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예텐의 축복을 회복하려 했던 신앙 선배들의 노력에서 나온 결실이다.

3. AI 시대의 새로운 독재 경계와 복음적 대안

지금의 AI 시대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빅테크 기업이나 막강한 자본을 가진 소수가 기술을 독점한다면, 이는 과거의 독재시대와 같은 마귀의 역사라 반복되는 것이다. 진정한 AI와 빅테크의 흐름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 같은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청교도신앙으로 세워졌으나, 현재는 간접 민주주의체제 아래 기득권자들의 패권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세력과 종교로 승리하려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극좌, 극우 대립과 혐오는 결국 사단에게 속은 결과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된 때만이 참된 민주주의, 정의와 공평이 흐르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가치관은 야생의 논리이다. 이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내 기업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해쳐도 된다는 잘못된 자본주의의 논리를 낳았다. 마약, 도박,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이러한 적자생존의 뿌리에서 나온 결과이다. 우리는 이러한 악용장자의 논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다니엘이나 에스테라와 같이 정직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램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다. 기독교, 성공회, 장로교, 개혁신교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음을 발견하는 여러 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패권다툼이 치열한 이 시대에 최근 우리 정부와 AI팀이 유럽을 방문하여 UN AI기구를 한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이 예산을 삭감하여 어려움을 겪는 UN가운데 한국의 제안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UN AI센터가 세워진다면, 이는 전 세계의 기아와 질병문제를 AI로 분석하여 돕는 센서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질병정보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델을 한국이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선진국 중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식민지로 삼아 착취하지 않고 자국민의 노력과 기도로 일어난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은 패권이 너무 강해 다른 나라들이 경계하고, 중국은 공산당체제의 통제로 인해 두려움을 준다. 반면 AI 3대 강국인 한국은 '착한 나라'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지말에 237나라와 5,000족을 살리기 위해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시간표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이끄는 인재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복음엘리트'로 치유하고 양육해야 한다.

서론 : 복음엘리트 누가의 전문성과 정리

고난 주간과 부활의 의미를 복상하며 우리는 누가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한다. 누가는 의사이었으며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그는 세세기와 로마, 헬라의 학문을 모두 섭렵한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체험하고 인류 역사를 다시 써야다보았을 때, 인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의 왕'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황제들은 모두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민족을 정복하여 착취하는 왕들이었다. 누가는 세상의 권력과 성공이 인생의 답이 아님을 깨닫고, 평생을 복음엘리트로서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 우리 후대들도 세상 학문을 넘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 복음엘리트의 특징은 정리하는 습관에 있다. 복음과 말씀, 인생과 미래를 세세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노트정리를 잘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핵심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사람이 시험에서도 승리한다. 강단메시지에 집중하여 단어 하나라도 적고 정리하는 습관은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이어진다. 과거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도 공부하기 싫어하던 아이들에게 칠판의 내용을 따라 쓰게 했더니, 결국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업을 잘 수행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누가가 당시 로마파우스에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사역을 수집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정리한 것은 오늘날의 AI전문가들과 같은 역할이다. 수많은 정보를 가지 있게 정리하는 작업은 지금의 AI기술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고난한 사역이었다. 주님이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도 어릴 때부터 시장의 흐름과 유가 변동, 전세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주식을 사는지 정리된 데이터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섣불리는 사람들이 남의 말만 듣고 도박처럼 투자하며 스스로 정리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정보기술(IT)분야의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코딩을 잘하는 이들은 자신이 구현한 코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다가 필요할 경우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어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간과 허비하지만, 정리된 사람은 시대를 장악한다. 과거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칼뱅이 기독교강요를 통해 신학을 정리한 것은 대단한 역사였다. 쉘스 트민스드 신앙고백서와 같은 교리들도 그렇게 탄생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리적인 갈등과 자리싸움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복음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약과 타락으로 무너지고 무슬림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이유는 복음과 진도, 선교가 삶 속에서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의 왕되신 주님께 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은 엄청난 영적 사건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복음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가난, 저주, 질병, 갈등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복의 군왕'으로 세우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어떤 영적 사실로 믿어야 한다. 단순히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입술로만 왕이라 칭송하고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 노력만 한다며,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생활에 불과하다. 진정한 응답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실제적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시작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억지로 응답을 달라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 왕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함안이 꺾일 수밖에 없으니, 응답과 축복은 빛이 오면 이들이 몰려가듯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의 당연한 원리이다. 영적 원리를 모른 채 "예수가 왕이다, 흑암을 쫓았다"라고 말만 떠드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주님의 왕 되심이 실제 나 사건이 되어, 삶의 모든 현상이 흑암을 정복하고 승리를 증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모두가 말뿐인 신앙인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등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서 '70년'의 회복이라는 결론을 찾아내어 인생을 정리했다. 그는 모든 시한착오를 넘어 복음으로 결론을 맺기에 사자 곧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복의 군왕이 되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엘리트' 다니엘, 에스테라, 클라를 만들기를 기도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추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 램프들이 일어나야 한다. 사자의 입을 먹고 죽을 앞에서도 살아가는 영적 실력을 갖춘 이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부모나 환경, 교회의 갈등에 시련 드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1. 복음엘리트 누가

1) 연구와 존행의 인물, 에스라와 누가 누가는 구약의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뜻을 행했던 선지자였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 구약성경의 소중한 말씀들이 정리되어 남을 수 있었다. 누가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말씀들, 특히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사역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방

대한 기록으로 정리하였다. 흔히 사도행전을 바울이 쓴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나, 사실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누가가 정리한 것이다.

2) 데오빌로 각하를 향한 엘리트선교와 누가의 성경을 기록한 일차적인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를 향한 엘리트선교'와 누가의 성경을 기록한 일차적인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를 향한 엘리트선교'를 복음화하기 위함이었다. 지식인과 엘리트에게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누가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더 확고히 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데오빌로 각하는 복음의 확신을 얻었으며, 이후 전도운동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을 것이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Deos)'과 '사랑하는 자(Phileo)'의 합성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특정인물을 넘어 미래에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릴 모든 후대 램프들을 일 수도 있다.

3) 영적 무능을 치유하는 복음의 빛과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과 영적 상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군복무 시절 만난 명문대 출신의 똑똑한 동료들을 보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뛰어나나 영적으로는 매우 무지하고 무능했다. 영안이 어두워져 사단에게 장악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박사나 교수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상태가 된다.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엘리트들이 가지지 못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줄고 살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2. 누가의 신본과 영적 정체성

1) 참 제사장과 참 선지자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전도는 하지 못한 채 남을 정리하고 비판하며 잘난 척하는 일에만 빠지게 된다. 이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상태이다. 참 제사장되신 주님이 주인이 되면 나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과 가족의 허물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격정하거나 열려할 필요가 없다. 참 길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가(Luke)라는 이름의 뜻처럼 빛나고 총명하며 빛을 주는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릴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이 환하게 밝아지게 된다. 이 치유의 사명자로 서게 되길 바란다.

2) 사랑받는 의사는 누가의 겸손(골로새서4:14)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의사이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받는 의사'라고 칭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한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품과 중신을 방해하는 흑암세력을 쫓고 정복해야 한다.

3) 문제 뒤에 숨겨진 300%의 축복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 지금 겪는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축복을 위한 예방주사와 같다. 큰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0.1초 만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답을 내려야 한다. 문제 뒤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4)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신본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무능력함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타인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살 이유가 없다.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하늘 나라의 왕권을 부여받은 '왕자'와 '공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실제 신분이자 권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속에 영적인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당당한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어떤 노력을 하기 이전에, 이 신분에 대한 확신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압도할 수 있다. 이 신분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은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서게 된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가장, 가장, 그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이자 '절대 망대'이다. 망대 안에서 현장을 지키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파수꾼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파수꾼은 현장을 향해 올바른 경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우상숭배와 중독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담대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육신적인 욕구, 인간관계의 갈등에 속아서는 안 된다. 노예와 같은 힘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불만족은 사실 '실상'이 아니다. 현재의 문제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하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만이 유일한 실체이다. 비참해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라. 여러분의 진짜 미래는 왕과 공주처럼 모든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다. 이 실상을 미리 보고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3. 이방인 누가의 유일성과 그리스도 결론

성경 66권의 저자 중 유일하게 히브리인의 직계 후손이 아닌 이방인 저자가 바로 누가이다. 예수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경 저자가 유대인이었으나, 하나님은 이방인인 누가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방대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정조'의 축복이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인생의 결론을 냈다. 우리 역시 만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완벽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인생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제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녀문제, 사업문제, 배우자문제 등을 놓고 이렇다 할 해결책만 찾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적인 관습은 문제해결 자체나 주변 사람의 변화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모가 잘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견고한 제자로 서기를 원하신다. 주변의 갈등과 고통은 사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하기 위한 도구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제자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며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신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항상 눈에 띄니까 이 문제 해결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편안하지만 하면 단점을 하기 쉽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가 필요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유일성의 길로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4. 사도 바울의 특별한 동역자 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결을 떠나갔으나, 누가와 디모데 같은 참된 제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누가는 바울의 보호자이자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제자들처럼 헌신하였다. 누가가 언제부터 바울의 선교여행에 합류했는지는 사도행전의 표현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전까지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다가, 이때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작한다. 이는 누가가 직접 바울과 동행하며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35가지 고유한 비유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3년 동안 마귀의 다락방 성도들과 목격자들이 일일이 인터뷰하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복음을 정리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누가의 헌신은 오늘날까지 천 년의 응답으로 남아 있다.

5. 복음과 전도를 정리하는 파수꾼의 사명

이제 우리는 성경을 새로 쓰거나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과 전도, 선교를 정확

히 정리하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 '구원의 길'을 정리하는 것은 300명 영접운동과 현장 살리기를 위한 어마어마한 영적 사역이다. 나는 이번 설교대회 이후 히로시마 전도캠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챗GPT와 같은 AI기술을 활용해 일본어 전도메시지를 연습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어를 몰라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이다. 현장에서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하고 시를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라. 기술과 도구를 전도와 선교를 정리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것이다. 전 세계의 경제와 축복은 복음과 선교를 알고 있는 교회에 집중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은 교회는 유럽과 미국의 사세처럼 결국 종교화되어 무너지고 만다. 복음의 알맹이 없이 교파와 내 교회의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은 마귀의 공격을 입을 수 있다. 막대한 갈급함으로 소리치며 부르짖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명확히 정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6. 개역주의 신앙의 핵심, TULIP(튤립)의 복음적 이해

교회사 속에서 칼빈(John Calvin)과 신학 선진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리한 결과물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며, 그 핵심교리가 바로 'TULIP(튤립)'이다. 이는 다섯 가지 교리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

1)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태이기에 사람에게서는 결코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게 될 뿐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경이 번역되고 개혁주의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과 악하고 추한 일들이 벌어졌다. 복음을 깨닫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며,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고 회개가 없구나'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가장 먼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선언한다.

2)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훌륭함이나 선함, 혹은 윤리 도덕적인 수준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부추하고 못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주변에 부추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귀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3) 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제한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다.

4)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붙들신다. 나의 중학고시절 사제가 좋은 예이다. 당시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너를 만난 것이 재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유를 물으니 "나는 이상하게 어떤 짝을 만나도 꼭 꼬박 다니는 사람만 만나서 나를 전도하더라"는 것이었다. 친구는 이를 웃어 넘기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자 복된 선택의 음성이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절대도 도망갈 수 없다.

5) 성도의 건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우리가 때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갈등 속에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질병, 혹은 여러 가지 안 되는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제자이자 전도자,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영원한 건인의 은혜이다.

7. 누가복음을 분석하는 영적 연구 틀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문을 쓸 때 연구의 틀이 필요하듯이, 누가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영적 틀이 있어야 한다. 누가가 정리한 복음 현장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영적 레버리지(Spiritual Leverage)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의미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것은 절대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하다. 오늘날의 AI나 인터넷 기술도 일종의 레버리지이다. 정부가 넘쳐나고 통번역 기술이 발달해도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여 전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도는 자신의 전문분야와 전도, 선교현장에서 이러한 도구들을 300% 활용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영적 그릇(Spiritual Vessel) 성도는 영적인 그릇이 커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그릇을 갖추어야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다. 사업이나 가용, 교회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쉽게 깨지거나 소리 나게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포용의 그릇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3) 영적 트랜스미션(Spiritual Transmission) 복음과 말씀을 미래세대와 천 년의 응답으로 전달하는 전수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확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4) 노바디(Nobody)의 응답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주역으로 쓰임받은 복음이다. 교회 현장이나 보수, 식당봉사나 각종 헌신이 필요한 곳에 사람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으니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는 자가 노바디의 응답을 받는 자이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소외되고 버려진 현장의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정리했다. 70인 제자, 삭개오, 돌이온 탐자, 선한 사마리아인, 부자와 나사로, 어리석은 부자, 열 명의 나병환자 이야기 등 약 35가지의 고유한 예화는 오직 누가만이 정리한 노바디의 기록이다.

5) 영적 플랫폼(Spiritual Platform) 누가복음은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영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성도 역시 이 플랫폼으로 쓰임 받길 축원드린다.

6) 영적 아웃소싱(Spiritual Outsourcing)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필요는 없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교회 지역의 차단기가 고장 났을 때 전문가를 불러 수리하는 아웃소싱을 진행했다. 비용은 들었지만 장로님과 연결하여 바람도 들어오지 않게 예쁘고 튼튼하게 고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나라에 직접 가서 세계복음화를 다 할 수는 없다. 선교사로써는 돕고 선교현장을 드림으로써 그 나라와 현장을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웃소싱이다. 누가는 자신이 정리한 말씀을 많은 이에게 전달하여 세계를 살리는 협력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결론 : 복음을 정리하고 전수하는 주역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과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누가는 모두 하나님의 '오직 복음'을 명확히 정리하여 후대에 남긴 인물들이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오직 복음을 정확히 정리하여 쓰임받은 자들 되시기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맞이하여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음과 은혜를 누가처럼 잘 정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역과 민족, 나아가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